‘짐이 아닌 힘’…41세에도 당당한 현역 스트라이커 이동국

자타공인 ‘K리그 살아있는 전설’…22년 전인 1998년 포항서 데뷔

2020년에도 전북과 재계약…2009년 전북 입단해 12년째 녹색 유니폼

2019년 K리그1 3연패와 함께 통산 7번째 별을 가슴에 품었던 전북현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이는 세징야(대구), 주니오(울산) 등과 함께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되는 로페즈였다. 로페즈는 11골 7도움을 기록해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로페즈 버금가는 기록을 작성한 이가 문선민이다. 문선민은 10(골)-10(도움) 클럽에 가입하면서 호화군단 전북에서도 에이스 몫을 톡톡히 해냈다.

외국인-토종 핵심 듀오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이는 이동국(41)이다. 1979년생. 마흔의 나이로 2019시즌 33경기에 나선 이동국은 두 자릿수 득점에 하나 부족한 9골(2도움)을 터뜨리면서 팀 내 득점 랭킹 3위에 올랐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감흥이 떨어지지만, 이동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K리그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이동국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8년 포항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그리고 그해 24경기에 출전해 11골 2도움을 기록하며 신인상을 받았다. 앳된 얼굴로 갈기 같은 머릿결을 뽐내던 ‘라이언 킹’의 등장이었다.

어느덧 다섯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이동국은 지난해 강원FC와의 시즌 최종전에도 출전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 7개월 2일. K리그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에서 이동국보다 앞서는 이는 단 3명뿐이다. 김병지(45세 5개월15일), 신의손(44세 7개월9일), 최은성(43세 3개월15일) 등인데 모두 골키퍼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이동국이 단연 1위다. 2위가 현역 시절 ‘철인’이라 불리던 김기동 현 포항 감독인데, 그 성실함의 대명사도 39년 9개월18일까지만 필드를 누볐다. 이미 이동국은 김기동과의 차이를 1년가량 벌렸는데 격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구단은 지난 7일 “지난해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끈 이동국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전북에 입단한 이동국은 12년째 녹색 유니폼을 입게 됐다.

구단 측은 “이동국은 지난해 팀 내 득점 3위(9골 2도움)에 오르는 등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북의 역사를 함께 만든 팀의 레전드 선수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설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실력’이 전제됐기에 가능한 연장 계약이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잘하지 못하는 선배’는 후배들이 따르지 않는 법이고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이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누구보다 아름답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던 차두리 오산고 감독은 현역 시절 막바지 “베테랑이 베테랑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능력이 뒷받침 돼야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력”이라는 뜻을 전한 적 있다. 많은 이들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노장의 가치’를 말할 때 정작 자기 스스로가 노장이던 차두리는 “그 미덕을 발휘하려면 일단 선수로서의 가치가 빛나야한다”고 단언했다.

차 감독은 “고참은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팀에 짐이 된다. 경기장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경기력을 100% 발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 고참으로서의 몫을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발언과 딱 부합하는 인물이 이동국이다. 이동국은 ‘짐’이 아닌 ‘힘’이다.

참고로 이동국은 차두리 감독(40)보다 형님이다. 올 시즌 경남FC의 지휘봉을 잡는 설기현 감독(41)과는 동갑내기로 현역 시절 대표팀에서 많이 호흡을 맞췄다. 성남FC 새 사령탑 김남일 감독(43)과는 지난 2014년 전북현대에서 우승을 합작한 바 있다. 또래들은 어느새 감독이 됐는데, 이동국은 여전히 당당한 현역 스트라이커다.

뉴스1

김광현, SK 스프링캠프 동행…“심리적 도움 클 것”

2월12일 세인트루이스 합류 전까지 SK 캠프 동행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하는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월초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친정팀 SK 와이번스의 스프링캠프에 잠시 동행한다.

김광현은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나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2주 정도 훈련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설 연휴를 보내고 1월말쯤 미국으로 떠난다.

세인트루이스 투·포수조가 스프링캠프에 합류하는 날은 2월12일이다. 김광현은 그때까지 개인 훈련을 소화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SK의 스프링캠프가 예정돼 있어 세인트루이스 캠프 합류 전까지 친정팀과 함께 하기로 했다.

SK는 2월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세인트루이스의 스프링캠프는 베로비치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열린다.

손차훈 SK 단장은 “세인트루이스에 합류하기 전에 (김)광현이가 시차적응도 하고 몸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 쪽에 먼저 요청이 왔다”며 “우리도 흔쾌히 받아줬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SK 선수들과 숙소도 함께 쓸 예정이다. 메이저리그라는 큰 무대에 도전하는 김광현에게 익숙한 얼굴들과 편안한 환경은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손 단장은 “큰 무대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두려울 수 있다”며 “혼자 몸만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훈련의 경우 “SK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겠지만 김광현 스스로 개인 루틴에 맞는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손흥민, FIFA CIES 새해 첫 몸값 평가 1028억…세계 54위

음바페 유럽 최고…스털링, 살라 2~3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가 발표한 새해 첫 평가에서 세계 54위, EPL 25위의 몸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FIFA 산하 CIES가 8일 발표한 ‘2020년 유럽 5대 빅리그 선수들의 예상 이적료’ 보고서에서 손흥민은 7850만유로(약 1028억원4363만원)의 몸값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54위에 해당하는 몸값으로, EPL에서는 25위다.

지난해 같은 시기 9390만유로(약 1229억원9679만원)으로 1억유로에 근접했던 손흥민의 몸값은 올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CIES는 매년 1월 초 소속팀의 성적, 나이, 포지션,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럽 5대 빅리그에서 뛰는 주요 선수들의 몸값을 산출한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팀 토트넘에서는 주포 해리 케인이 1억5050만유로(약 1971억원)로 1위를 기록했고, 델레 알리(9560만유로), 탕귀 은돔벨레(7890만유로), 손흥민이 뒤를 이었다.

유럽 최고의 몸값은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로 2억6520만유로(약 3476억원)였고, 이 뒤를 라힘 스털링(맨체스터 시티, 2억237만유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1억7510만유로) 등이 기록했다.

뉴스1